

해남군, 어린이날 맞이 공룡대축제 준비 '착착'

내달 4-6일 국내 최대 해남공룡박물관서 개최 첫 야간 개장·공룡놀이터 등 즐길 거리 '풍성'

해남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해남 공룡대축제 준비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날 연휴 3일간 해남공룡박물관에서 대표 축제인 2024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2회째를 맞는 올해 해남 공룡대축제는 '해남! 공룡이 살아있다'를 주제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는 어린이 공연과 공룡가족 버블 댄스타임, 마술쇼, 매직쇼 등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공연 행사가 3일 내내 이어진다.

특히 5월4일과 5일 오후에는 유명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룡가족 음악회와 아

름다운 불꽃쇼가 공룡박물관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실시하는 축제는 연휴기간 해남을 찾은 방문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룡박물관의 살아 숨쉬는 콘텐츠를 한껏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축제장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룡놀이터가 조성돼 25m 질라인과 에어바운스, 레일기차, 페달보트 등 신나는 놀이기구가 무료로 운영된다.

어린이와 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된다.

공룡박물관을 순환하는 공룡열차가 운행하고, 공룡을 찾아 떠나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가족 운동회, 익룡



해남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2024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해남어린이공룡대축제 현장. <해남군 제공>

을 잡아라 연날리기, RC카 체험과 더불어 공룡 관련 만들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5월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로 각종 공연과 함께 모범 어린이 표창, 전국 어린이공룡그림그리기 대회, 기념 퍼포먼스가 공룡박물관 잔디광장에서 열린다.

축제가 열리는 해남공룡박물관은 400

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희귀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또한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04호로 지정돼 있다.

세계 최대, 익룡 발자국 크기(25-30cm)와 규모, 새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곳으로 세계 최고 8천300만년 전 생성된 물갈퀴새 발자국



해남군이 어린이날을 맞아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2024 해남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해남어린이공룡대축제 현장. <해남군 제공>

화석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계적인 공룡화석지다. 박물관과 함께 33(만㎡)의 야외공원, 공룡발자국 보호각 등이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 공룡박물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과 가족 소풍 공간을 준비했다"며

"온 가족이 해남의 살아 숨쉬는 공룡들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에는 굵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5천여명의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면서 어린이와 공룡, 봄의 계절이 어우러진 축제로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해남=박필용 기자



"나비아, 청산가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6일 개막한 가운데 신우철 원도군수와 관광객들이 유채꽃밭에 나비 날리기를 하고 있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원도군 제공>

목포시 "양대체전 손님맞이 식품위생 강화"

오늘부터 이틀간 식품접객업소 영업주 결의대회

목포시가 양대체전 성공 개최를 대비해 손님맞이 식품위생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11-12일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 결의대회를 가진다.

한국의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목포 모범식당 영업주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식품접객업 대표자로 나선 김태훈 한미르 대표, 오선영 예방향정식 대표, 전일훈 약산휴업소 대표, 박미 미밥상 대표가 완벽한 손님맞이를 위한 결의문을 낭독하고, 참석자들은 밝은 미소,

반가운 인사, 따뜻한 친절로 전국 제일의 음식점 문화 조성에 힘을 다짐한다.

또한 목포를 찾은 관광객에게 안전한 음식점 환경을 제공해 목포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 적정 음식과 가격, 친절 한 손님맞이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목포를 만들자고 결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대체전 대비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취·휴전설'의 교육을 통해 친절·정결을 강조하며 양대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할 예정이다. /목포=정해선 기자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남동쪽 장바위산 해안침식 지형 발달... 뛰어난 경관 연출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만재도 주상절리는 만재도 섬 전체의 해안을 따라 노출된 응회암층에서 주상절리가 잘 나타난다. <사진>



섬의 남동쪽 해안과 북쪽섬인 녹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주상절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파도와 바람의 작용으로 형성된 해안침식 지형(해식애, 해식동굴, 씨아치 등)이 발달했다.

만재도의 남동쪽 장바위산 해안 절벽에는 수십 미터 규모의 주상절리가 절경을 이룬다. 이들 돌담이는 중생대 백악기(약 1억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만재도 응회암으로 용결응회암의 형성 과정, 화산학적 특징(부식편, 용결열리) 등과 관련해 학술 가치가 높다. /신안=양훈기자

'영광 찰보리 어울터' 문열었다

영광군은 "최근 군남면 포천리 지내를 일원에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랜드마크인 '영광 찰보리 어울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개관식에는 강종만 군수를 비롯한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정진삼 영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장, 기관 사회단체장, 농업인단체 및 군민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입된 '영광 찰보리 어울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군남면 포천리 지내를 일원에 건축 면적 7185㎡, 연면적 8841㎡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다.

1층은 찰보리 활용 주민교육체험실과 농·특산물 홍보실, 2층은 회의실 등의 주민복지공간을 갖췄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로컬푸드 직매장 '남악·오룡지구' 최적 입지

군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 '적합'

무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로 남악·오룡 신도시가 최적 입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무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김산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농협 등 유관단체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목적과 현황 및 수요 분석,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시사점, 입지·경제성 분석, 운영 활성화에 대한 전략적 제언 등을 용역사에서 발표했다.

적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적 입지는 남악 또는 오룡지구로 분석됐다. 특히 기획 생산의 조직화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중·소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응답에서는 ▲'유사사례 분석에서 성공 사례만 포함됐고 실패 사례는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견 ▲'농가의 수익 분석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사업의 청사진만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 ▲'전반적으로 타당성 분석이 잘 된 것 같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용역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경제

나용석 삼향농협 조합장은 "로컬푸

드 직매장 건립이 확정되더라도 농가 조직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행정이든 농업이든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산 군수는 "안되는 부분을 고민하는 것보다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해결하는 것이 농가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유관단체들과 유기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4월 중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에 대한 정책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무안=김성호 기자

'4·8 만세운동' 추모식·재현행사 거행

함평군, 3·1만세탑·문장장터 일대서 가두행진

함평군은 10일 "지난 8일 해보면 문장리 3·1만세탑 광장과 문장장터 일대에서 해보면청년회와 함께 4·8 만세운동 추모식 및 재현행사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의 군수, 운영위원장 등 유족, 주민, 학생 등 1천여명이 참석했으며, 해보면 사무소에서 3·1만세탑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행사 참여자들은 두루마기에 깃을 쓰는 등 당시 분장을 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일본 헌병 분소를 기습하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4·8 독립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4월

8일 지역의 애국지사 24명이 함평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한 사건으로 훗날 많은 만세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함평군은 100년 전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행사 전날에는 4·8만세운동 발원지인 월야면 낙영재에서 제례행사를 열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상의 군수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그들의 드높은 정신을 기려하고 받들어 더욱 굳건한 함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영수 기자

영암호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 밑그림 착수

영암군, 사업별 추진 전략·재원확보 방안 마련

영암군이 영암호 일대에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 구상에 착수했다.

영암군은 "최근 목포대학교에서 '영암호 관광레저 기반 구축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정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과 연계, 영암호와 서남해안 일대를 남해안권 관광벨트 거점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해양관광레저 도시의 기반

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영암군, 해남군, 전남도, 목포대학교와 MC에너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SPC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전남 서남 해안권 복합관광 거점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해양관광레저가 관광산업시장 전체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임을 공유했다.

나아가 최근 해안가 중심 관광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정책 사업 설계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해양관광레저 중심지 조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내수면 marina ▲해양레저 인력양성센터(정비·관리 교육) ▲내수면스포츠가치센터(교육·체험) ▲조정·카누경기장 등 다양한 해양관광 레저산업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12개월 간 수행될 용역에서는 영암호 복합해양관광레저 도시 모델을 설정하고, 지역 여건 분석, 실행 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거쳐 단계·사업별 추진 전략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영암=남동호 기자